

# 그 응 김

Korea Hemophilia Foundation  
2015 1 / 2 vol.141



특집	‘호오호로애락’ ① 좋아함 (好, 好)
테마돋보기	호감의 비밀
혈우병스토리	세대별로 달라지는 호감의 대상
테마이슈	종이책(paper) VS 전자책(E-book)
혈우가족 이야기	끈기와 노력으로 이룬 변리사의 꿈 수술을 망설이지 말고, 관리에 힘쓰기 바랍니다 현서, 현우, 현준이의 꿈을 향한 멜로디
혈우정보	새학기 대비 자기주사
Health life	겨울철 공공의 적 뇌졸중
Culture life	새로운 시작, 영화 버킷리스트





| 편집실 |

## 2015년, 푸른 양처럼

안녕하십니까. 을미년 새해 첫 코헬지의 문을 열며 새로운 마음으로 인사드립니다. 하루하루 무심코 살아가다보면 아직까지 2014년인 것처럼 느껴질 때가 종종 있는데, 어느덧 2015년의 1월을 보냈다는 게 쉽게 와 닿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2015년은 어떠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새해를 맞이하셨나요. 조금씩 다르겠지만, 아마도 2014년보다는 즐겁고 행복한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같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다시금 시작의 중요성을 생각해봅니다. '시작'이라는 단어에는 언제나 두 가지 얼굴이 있습니다. 첫 단추를 잘 꿰어야만 한다는 부담감의 뒤편에는 새롭게 펼쳐질 삶에 대한 설렘도 있게 마련이죠. 둘 중 어느 것이 더 크게 와 닿는지는 여러분

들만이 아실 것입니다. 다만 그것이 무엇이 되었던 저희 혈우재단은 여러분들이 2015년을 의미있게 시작하시고, 그 어느 때보다 건승하시는 한 해가 되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새해를 맞아 코헬지도 새로운 마음으로 시작합니다. 새로운 연간특집을 통해 보다 많은 환우분들과 함께 '우리 모두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더욱 알차고 유익한 내용으로 환우 여러분들께 건강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을미년(乙未年) '청양(靑羊)'의 해입니다. 청양은 온순하면서도 진취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고 하는데요. 올 한해 청양처럼 푸근하면서도 하시는 모든 일들을 성취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코헴

2015 1 / 2 vol.1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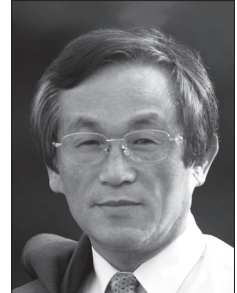


· 발행일 2015년 2월 2일 · 발행인 황태주 · 편집인 송중호 · 발행처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 주소 서울 서초구 사임당로 70  
· 전화 02-3473-6100 · 팩스 02-3473-6644 · e-mail office@kohem.org · 디자인 이일롬 · 인쇄 인쇄파이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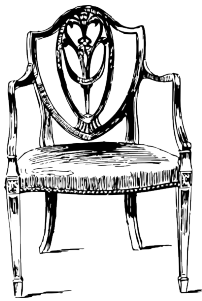
·	신년사	거듭나기	2
	특집	'호오희로애락' ① 호감(好, 好)	4
:	테마돋보기	호감의 비밀	5
·	혈우병스토리	세대별로 달라지는 호감의 대상	8
::	테마이슈	종이책(paper) VS 전자책(E-book)	10
·	안내	재단 지원 사업 변경	12
·	혈우가족 이야기	끈기와 노력으로 이룬 변리사의 꿈 수술을 망설이지 말고,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현서, 현우, 현준이의 꿈을 향한 멜로디	13 16 18
·	혈우정보	새학기 대비 자기주사	21
	안내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23
·	Health life	겨울철 공공의 적 노졸중	24
·	Culture life	새로운 시작, 영화 버킷리스트	26
·	재단소식		28
·	퀴즈 / 나도 한 마디 / 독자엽서		30



## 거듭나기



황태주 | 한국혈우재단 이사장



새해가 오면 누구나 새로운 희망을 갖습니다. 지난해의 희망이 무엇이었던 그것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새로운 희망, 새로운 각오를 하게 마련입니다.

지난해에는 국내외적으로 사건 사고도 많았고 그에 비례해서 갈등과 오해와 대립도 많았습니다. 국제화 시대에서 어느 한쪽의 대립과 갈등은 전염병처럼 어느 사회에나 영향을 미칩니다. 한나라 안 여러 집단 사이에서 갈등과 대립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 갈등과 오해를 어떻게 해결하여 대립각을 줄이느냐가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희 혈우재단은 지난 2년간 “다함께” 라는 슬로건으로 화합을 도모하고 그 힘을 바탕으로 치료 환경 개선과 삶의 질 향상을 향해 한발 더 전진하고자 하였습니다.

재단이 설립된 지도 어언 4반세기가 되었습니다. 흐르는 물처럼, 구르는 돌처럼, 부드러운 바람처럼, 재단도 항상 역동적이어야 할 것입니다. 거듭나기 위해서는 날로 새로워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자신의 존재 이유를 또 새롭게 깨달아야 하며, 그것은 곧 혁신과 창조의 기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 첫사랑의 설렘으로 변화된 재단을 기다립시다.

새해에는 제가 좋아하는 시 한수와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황지우 시인의 “너를 기다리는 동안”이라는 시입니다. 저는 갈등을 넘어서 화합으로 거듭나는 혈우 사회를 기대합니다.



## 너를 기다리는 동안

황지우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에  
내가 미리 가 너를 기다리는 동안  
다가오는 모든 발자국은  
내 가슴에 쿵쿵거린다

바스락거리는 나뭇잎 하나도 다 내게 온다  
기다려본 적이 있는 사람은 안다

세상에서 기다리는 일처럼 가슴 애리는 일 있을까  
네가 오기로 한 그 자리, 내가 미리 와 있는 이곳에서  
문을 열고 들어오는 모든 사람이  
너였다가  
너였다가, 너일 것이었다가  
다시 문이 닫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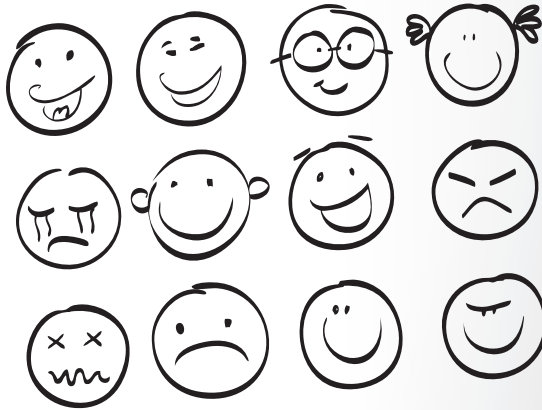
사랑하는 이여  
오지 않는 너를 기다리며  
마침내 나는 너에게 간다  
아주 먼 데서 나는 너에게 가고  
아주 오랜 세월을 다하여 너는 지금 오고 있다  
아주 먼 데서 지금도 천천히 오고 있는 너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도 가고 있다

남들이 열고 들어오는 문을 통해  
내 가슴에 쿵쿵거리는 모든 발자국 따라  
너를 기다리는 동안 나는 너에게 가고 있다.



2015년 연간특집

# 호오희로애락



살아가면서 느낄 수 있는 감정은 총 몇 개나 될까요?

감정이란 게 정확히 몇 개나 있는지 알 수 없지만, 무수히 많은 것만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감정은 좋아함(好), 싫어함(惡), 기쁨(喜), 화(怒), 슬픔(哀), 즐거움(樂) 등 6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이 6가지 감정을 이른바 '호오희로애락'(好惡喜怒哀樂)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이러한 감정들을 통해 우리는 웃고 울고, 기뻐하고 슬퍼하며 인생에 녹아들게 됩니다.

2015년 코헬지는 호오희로애락이라는 주제로 1년 동안 환우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감정과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매호마다 특집으로 구성되는 6가지 감정들을 통해서 인생의 지혜와 통찰이 깊어지시기를 바랍니다.

## 好

### ① 호감(好, 호)

「코헬지」는 2015년 한 해 동안 연간 기획특집으로 인간의 감정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번호에서는 첫 번째로, '호감(好)'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호불호'라는 말도 있듯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기호를 갖고 살아가는데요, 이번호에서는 호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호감의 비밀

-----

인간관계에서 호감은 매우 중요하다. 누구나 호감가는 사람을 신뢰하고 함께 일하고 싶어 한다. 하지만 호감을 얻기란 말처럼 쉽지 않다. 이번호에서는 연간특집 '호감(好, 호)에 대해 알아보도록 한다.

### 호감이란

본문을 시작하기에 앞서 호감의 정의부터 짚어보자. 호감(好感)이란 ' 좋게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말 그대로 좋은 감정을 뜻하는 것이다. 사람들은 어떤 대상에 좋은 감정을 갖고 있으면 호감이 있다고 말한다. 호감을 느끼는 대상은 무수히 많다.

그 중에서도 사람에 대한 호감은 매우 특별하다고 할 수 있다. 흔히 지인들을 호감 대비호감(非好感)으로 분류할 정도로, 호감은 사람을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호감이냐 비호감이냐에 따라 한 사람의 이미지와 평판, 인지도가 결정된다. 호감이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기도 하고 단절시키기도 한다.

호감은 인간관계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타인에게 호감을 얻을수록 원만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다. 때문에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에게 호감을 주기 위해 노력한다. 입사면접을 앞두고 미용실에서 한껏 치장하는 취업준비생, 직장생활을 위해 늘 미소를 짓고 다니는 신입사원, 인맥을 관리하기 위해 친절을 베푸는 어르신들까지.

호감은 이렇게 삶에 깊숙이 개입하여 인간관계를 좌우한다.

### 속마음보다 중요한 겉모습?!

호감의 영향력은 인간관계 안에서만 그치지 않는다. 사람들은 호감에 근거하여 삶의 다양한 부분을 결정한다. 가장 쉬운 예로 기업의 인사(人事)활동을 들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에게 이력서 사진은 토익점수, 자격증, 인턴경력 못지않은 스펙이라고 할 수 있다. 사진이 지원자의 당락을 좌우하는 데 크게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실제로 한 취업전문사이트가 기업의 인사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

자 중 93.5%가 ‘이력서 사진’을 합격 여부에 반영시킨다고 말해 이력서 사진이 합격을 좌우한다는 말이 사실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절반 정도는 지원자의 역량과 경력보다 이력서 사진을 먼저 본다고 답했다. 이들이 사진을 먼저 보는 이유로는 ‘성경 및 성향 검토’, ‘호감도 상승’, ‘외모도 경쟁력이라서’ 등이 있었다. 이는 기업이 호감가는 이미지의 지원자를 선호한다는 방증이라고 할 수 있다.

호감은 선거에서도 힘을 발휘한다.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유권자들에게 호감을 전달하는 것은 공약과 인지도를 전달하는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 어느 후보에게 투표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면 호감가는 후보에게 표를 던지는 게 유권자의 마음이다.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선 후보들 간 TV토론회가 열린 1963년 미국 대선은 호감이 유권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당시 TV토론을 했던 후보는 케네디와 닉슨이었다. 둘 다 40대의 젊은 후보였지만, 사람들은 부통령까지 지낸 닉슨의 당선을 점쳤다. 하지만 TV토론 후 분위기는 반전됐다. 오래 전부터 카메라 앞에서 세련된 표정과 제스처를 연습한 케네디가 브라운관을 통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흔든 것이었다. 반면 닉슨은 경력과 공약을 알리는 데 치중한 나머지 별다른 호감을 주지 못했다. TV 속 케네디는 젊고 활기찬 후보로, 반대로 닉슨은 나이 많고 고리타분한 후보로 보였다. 이 토론을 계기로 역전에 성공한 케네디는 결국 미국의 35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 주변 사람들까지 행복하게 만드는 호감의 비밀

사람들은 굳이 ‘호감인 사람’과 ‘비호감인 사람’을 논리적으로 구분하지 않고도 얼마 지나지 않아 상대방이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알 수 있다. 이는 호감이 이성보다는 감정에 지배받기 때문이다.

감정은 전염된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도 좋아하고 있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이는 감정이 전염되기 때문이다. 감정의 전염은 주로 표정, 몸짓과 같은 비언어적 수단을 통해 일어난다. 때문에 평소 주변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풍기는 사람은 주변 사람들의 기분까지 좋게 만들어 인기를 얻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도 주변 사람들로부터 호감을 얻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직장인들 대상 ‘신입사원에게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30% 정도가 ‘동료들과의 관계’라고 답했다. 또한 ‘동료와 잘 지내는 방법’으로는 ‘예의범절과 ‘성실한 근무태도’가 1, 2위로 뽑혀 직장에서 호감을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짐작할 수 있었다. 또 다른 설문에서도 ‘직장생활을 하면서 이미지 만들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한 적이 있는가’라는 질문에 94%가 ‘그렇다’고 답해 호감이 원만한 직장생활을 위한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비단 직장뿐만이 아니다. 친구를 사귀는 때에도, 연애를 할 때도 매력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갖는 건 당연한 일이다. 그렇다면 호감을 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가장 확실한 방법은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하는 것이다. 언제나 밝은 얼굴로 인사하는 사람들을 만나면 덩달아서 기분이 좋아지게 된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 사람의 즐거운 기분에 동화되는 것이다. 이처럼 주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기분을 불러일으킬수록 호감을 얻기가 쉬워진다.

## 호감을 얻는 5가지 방법

### 1) 밝은 목소리와 미소로 먼저 인사해라

미소와 함께 건네는 인사는 주변 사람들의 기분마저 좋게 만든다. 아무리 우울한 일이 있어도 밝게 인사하는 사람 앞에서는 스르르 미소짓게 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

### 2) 상대방의 사소한 한 마디에도 귀 기울여라

자신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 끌리는 건 당연한 일이다. 설령 그 이야기가 재미없고 자신과 관련이 없을지라도 경청하는 모습을 보여라. 상대방은 그런 모습에 고마움을 느낄 것이다.

### 3) 역지사지의 자세로 상대방을 존중해라

외모가 다르듯 생각하는 것도 모두 다르게 마련이다. 하지만 자신의 생각만 옳다고 고집해서는 안 된다.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고 공감하며 존중할 줄 알아야 한다. 그러면 둘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것이다.

### 4) 겸손한 자세로 상대방을 배려해라

겸손과 배려는 호감을 얻는 가장 빠른 방법이다. 자랑보다는 겸손, 나보다는 타인을 위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으로부터 신뢰를 얻어라.

### 5) 상대방의 취향을 존중해주고 공통점을 찾기 위해 노력해라

사람들은 자신과 취향이 비슷한 사람을 좋아한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좋아한다면 사람들은 자신과 비슷한 사람이라고 판단해 더 신뢰하고 좋아하게 될 것이다.

## 세대별로 달라지는 호감의 대상

누군가를 좋아한다는 것은 보편적인 감정이다. 혈우 환우들도 누군가에게 호감을 가져본 경험이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번호에서는 연간특집의 첫 테마인 호(好)와 관련한 세대별 환우의 정서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 청소년, 이성에 대한 호감

혈우 환우들이 청소년기에 접어들면 부모 입장에서는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전과는 달리 대화가 줄어들고 혈우병 관리에 있어서도 소홀해지기 쉬우며 말을 잘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이는 대부분의 청소년에게서 공통적으로 보이는 정서적 특징에서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청소년기에는 부모에 대한 의존도는 줄어드는 반면 자립의지는 커진다. 성장속도가 빠른 만큼 심리적으로 부모에게서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다. 또한 친구에 대한 의존도도 커져, 친구관계에 많은 시간을 할애한다.

대개 청소년들이 그렇듯, 환우들도 이 시기 2차 성장을 겪으며 성적(性的) 호기심과 함께 이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질환과 자가관리에 대해 진지한 고려 없이 선불리 이성교제를 시작하기도 한다. 이성에게 잘 보이기 위해 외모에 집착하기도 한다. 따라서 청소년 환우들은 성교육을 통해 올바르게 성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부모는 자녀의 이성교제에 대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대화를 통해 자녀가 자가관리에 소홀해지지 않도록 지도가 필요하다.

### 20-30대, 배우자에 대한 호감

환우들이 20-30대에 들어서면 진로, 연애, 결혼 등에 대해 폭넓은 고민을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고민들은 개인은 물론 주변 관계에까지 많은 영향을 끼친다.

특히 결혼은 매우 중요한 문제다. 배우자가 될 사람이 환우의 혈우병 사실을 알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 사실을 고백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남녀 양측이 결혼에 합의하는 것도, 2세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가정을 꾸려나가는 것도 고민거리다.





때문에 혈우 환우의 결혼에는 많은 부담이 따른다. 건강하고 화목한 가정생활을 하고 있는 대부분의 환우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바로 자가관리를 열심히 한다는 것과 자신감이 높다는 점이다. 이들은 혈우병을, 결혼을 제약할 만큼의 심각한 문제로 생각하지 않는다. 오히려 스스로 관리만 잘 하면 혈우병이 일상생활에 지장은 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배우자가 안심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따라서 연애중이거나 결혼을 앞두고 있는 20-30대 환우들은 평소에 자가관리에 힘쓰고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는 게 중요하다.

## 중년, 가족에 대한 호감

환우가 중년에 접어들면 삶을 영위하고 혈우병을 관리하는 데 있어 원숙해지는 한편 신체적 노화와 함께 심리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하게 된다.

직장에서 은퇴가 가까이 올수록 노후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자녀의 결혼과 독립 과정에서 소외감을 느끼게 된다. 이로 인해 이전과는 달리 자녀와 가족에게 서운함이나 집착을 자주 표출하기도 한다. 이는 대다수 중년에게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특징이다.

또한 오랜 사회생활을 통해 쌓아온 인맥에 대한 부담감도 가중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환우를 비롯한 중년들은 부부간의 진솔한 대화를 통해 서로를 이해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서로의 가치관이 다르다는 것과 타인의 생각 또한 옳을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고, 이를 습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또한 부부가 함께할 수 있는 취미생활을 갖거나 가사를 함께 담당하는 것도 건강한 노년을 맞이하는 좋은 방법이다.



## 종이책(paper) vs 전자책(E-book)

“취미가 뭐니까?”라고 물어보면 흔히들 “독서”라고 답한다. 그만큼 책을 좋아하는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실제로 책을 펼치는 이는 그리 많지 않다. 책도 없이 그들은 무얼 보고 독서를 한다는 걸까.

###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느껴지는 종이책의 매력

책은 오랫동안 인간의 무료함을 달래줬다. 사람들은 책을 통해 잠시나마 일상에서 벗어나 즐거움을 찾는다. 뿐만 아니다. 책은 교양의 보고로서 인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책을 너무 많이 읽어 몸이 상했다는 세종대왕, 소설을 읽으며 혁명정신을 길렀다는 마오쩌둥의 일화만 보더라도 책은 인류 역사와 문화 발전에 많은 기여를 했음을 알 수 있다.

스마트기기가 보편화 되면서 종이책의 지위가 예전 같지 않다지만, 전자책과 비교하였을 때 종이책에서만 느낄 수 있는 몇 가지 장점이 있다. 가장 먼저 소장가치를 들 수 있다. 종이책을 좋아하는 많은 사람들이 책을 소장하는 데 의의를 둔다. 좋아하는 가수의 앨범이라면 모두 구입하는 팬처럼 좋아하는 작가, 장르의 책이라면 소장하여 자신만의 책 컬렉션을 만드는 것이다. 이들에게 있어 전자책은 스토리를 읽을 수 있는 플랫폼에 불과할 뿐 독립적인 콘텐츠가 될 수는 없다.



두 번째 장점은 집중도가 높다는 것이다. 전자책은 독서 중 문자메시지나 전화가 걸려오면 스토리에 온전히 몰입하기 어렵다. 반면 종이책은 일부러 스마트폰을 꺼내지 않는 이상 독서에 방해받지 않는다.

마지막으로 익숙함이다. 아직까지 화면을 터치하는 것보다 책장을 넘겨가며 독서하는 데 익숙한 사람들이 많다. 손끝으로 종이의 질감을 느끼고, 감명 깊은 문장에 밑줄을 긋고, 책갈피를 꽂는 등 종이책에서만 접할 수 있는 ‘익숙한’ 것들이 종이책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다.



## 스마트시대, 독서도 스마트하게

전자책, 영어로 E-book(electronic book)은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스마트기기의 등장과 함께 발전했다. 스마트기기만 있으면 어디서나 책을 볼 수 있다는 편리함은 독서에 새로운 패러다임을 불러왔다. 전자책을 보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서점, 출판시장에는 위기론이 불거졌다.

그도 그럴 것이 전자책에도 나름의 매력이 있기 때문이다. 먼저 편리함이다. 전자책은 종이책보다 휴대하기 편하다. 둘째로 다양한 기기에서 독서가 가능하다. 파일만 있으면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다양한 스마트기기를 통해 읽을 수 있다. 세 번째로 가격이 저렴하고 친환경적이다. 전자책은 기기 용량에 따라 수백권의 책을 저장할 수 있다. 또한 종이제작에 필요한 나무를 벨 일도 없고, 잉크도 사용하지 않으니 친환경적이다. 하지만 최근 이산화탄소 배출, 다량의 전력 소모, 광물 자원 사용 등 전자책의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친환경성에 대해 의문이 커지고 있는 추세이다.



## 결국 공존

전자책 시장 규모는 2012년에 이미 3,000억원을 넘어섰으며 앞으로도 성장할 전망이라고 한다.(한국전자출판협회, 2012) 또 다른 조사에서는 전자책에 대한 인지도는 98%이나, 직접 이용한 사람은 44%에 불과하므로 아직은 종이책의 영향력이 더 크다고 말해(트렌드모니터, 2013) 어느 쪽이 더 우세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결과가 나왔다.

종이책과 전자책, 둘 중 어느 것이 더 좋다고 말할 수 없다. 분명한 건 변화는 하루아침에 이뤄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TV가 처음 등장했을 때 신문과 라디오의 종말을 말했지만, 오늘날까지 신문과 라디오는 멀쩡히 살아있다. 마찬가지로 종이책과 전자책, 어느 한쪽의 승패를 말하기보다는 꾸준히 지적 욕구를 충족하는 게 변화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바람직한 자세일 것이다.



## 재단 지원 사업 변경

올해부터 재단 지원 사업의 일부가 변경되고 대학에 입학한 의료급여 환우/환우가족을 대상으로 입학 축하금을 지원한다. 이는 일상생활에서 환우의 건강과 편의를 증진시키기 위해 실시된 것으로, 항목은 아래와 같다. 자세한 내용은 재단 홈페이지(www.kohem.org)-[지원사업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혈우재단 사무국 복지기획팀 유미연. 02-3473-6100, 내선 306)



### 만성간염 치료비 지원

기존 - 보균환자 및 간경화 환우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연 2회까지 간초음파 검사비 지원

추가 - 간염 완치자의 재발 방지를 돕고자, 간염완치자에 대해서는 의사소견서 제출 시 연 1회 간초음파 검사비의 50%를 지원



### 수영 및 헬스 강습비 지원

기존 - 환우의 관절 강화 및 재활을 지원하기 위해 수영교육비 지원

추가 - 흉터, 피부 질환 등의 이유로 수영장을 다니기 어려운 환우들을 위해 헬스 강습비를 지원



### 취업교육비 지원

기존 - 취업교육비 신청서 및 교육기관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취업교육비를 지원

보완 - 환우의 취업과 취업 후의 생활까지 돕고자 지원하기 전에는 기존 서류와 함께 '취업교육 계획서'를 추가로 제출하고, 지원이 종료되면 '재직확인서' 및 '취업교육결과보고서'를 재단에 제출

### 신설

### 대학 입학 축하금 지원

의료급여 환우 및 환우 자녀의 대학입학 시 축하금 50만원을 지원한다. 이는 대학등록금, 교재비, 기숙사비, 의복비 등에 들어가는 환우의 경제적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환우가 학업에 정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신설됐다.

· 지원대상: 의료급여 환우 및 환우 자녀 중 2015년에 대학에 입학한 자



## Family Story

이주형 환우

# 끈기와 노력으로 이룬 변리사의 꿈

### 오랜 고민 끝에 내린 결론

안녕하세요. 이주형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께 제 삶을 말씀드리기 전에 변리사라는 직업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변리사가 요즘 각광을 받는다는 건 알아도, 정확히 무슨 일을 하는지는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변리사란 쉽게 말해서 '이익을 변호하는 사람'으로, 개인이나 기업이 특허, 상표 등 지적재산을 활용하여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요즘 글로벌 기업들이 지적재산권을 두고 경쟁하는 것을 자주 볼 수 있는데, 이 과정에서 특정 기업의 이익을 위해 컨설팅하고 지원하는 것도 변리사의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변리사를 꿈꿨던 건 아닙니다. 대학교 때 공부를 잘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대학 졸업을 앞두고 취업에 대한 고민이 커져갈 때 쯤 친구들이 하나 둘 취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에 출퇴근하며 야근에 시달리는 친구들을 보니 많이 힘들어보였습니다. 저 같은 혈우 환자들은 건강관리까지 할 수 있는 직장을 다녀야 하는데, 일반 기업에서는 건강을 관리하기 힘들 것 같았습니다. 또한 제 적성에도 맞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오랫동안 적성과 전공, 취업 후의 삶까지 고민한 끝에 변리사가 제격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 딱 3년만 해보자

처음 변리사 공부를 시작했을 때는 '딱 3년만 해보자'라고 마음먹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고시에 합격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었고, 취업난은 심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길게 볼 수 없었습니다.

공부는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3년 안에 합격해야 한다는 압박감과 함



계 직장에 다니고 있는 친구들을 볼 때마다 더 이상 지체할 수 없다는 부담감도 커졌습니다.

혈우병 관리도 스트레스였습니다. 장시간 의자에 앉아 공부만 하다 보니 체중도 늘고 관절에 무리가 왔습니다. 규칙적으로 운동을 할 수 있는 여건도 안 되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로 중간에 대기업에 들어갈 생각도 해 보았지만,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처음 계획했던 3년이란 기한은 해를 넘겨, 5년 동안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꽤 오랜 시간을 고시원에서 보내고 난 후에야 스트레스와 건강관리의 중요성을 깨달았습니다. 고시생활에도 적응했고, 공부에도 나름의 노하우가 생겼습니다. 그때부터 압박감보다는 여유를 갖고 적절히 스트레스도 관리하며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지금까지와는 달리 '스스로 시간 관리만 잘 하면 고시 생활도 나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공부가 안 될 때는 영화도 보고, 휴식도 취했습니다. 틈틈이 등산을 다니며 체중관리도 했습니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공부가 더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공부시간은 전보다 줄었지만 효율성은 더 좋아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새로운 마음으로 공부한 결과, 변리사 결심 5년 만인 작년 11월에 드디어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

### 공부보다 값진 동아리 활동

5년 동안 고시 공부를 했다고 하면 다들 놀라지만, 앞에서도 말했듯이 저는 공부를 잘하는 편이 아니었습니다. 성적이 안 좋아 대학원 진학을 포기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대학생활은 정말 즐겁게 보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대학에서 공부보다 값진 경험들을 많이 한 것이 오늘의 저를 있게 해줬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대학교에서 AIESEC(아이섹)이라는 '국제 리더십 학생 협회'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AIESEC은 전세계 1,700여개 대학교 학생들과 교류하는 국제 동아리인데, 저는 이 동아리를 통해 해외 학회에도 자주 참석하고 많은 친구들을 사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 단체들과 파트너십을 맺는 활동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 제 전공인 전자전기통신과 관련한 이공계적 역량 외에 마케팅 및 영업 스킬, 사람을 사귀는 노하우 등을 기를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들은 이공계에서는 쉽게 접하기 힘든 인문학적 소양을 쌓는데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변리사는 기본적으로 기술과 제품에 대한 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이공계 출신이 많지만, 많은 사람들과 만나 상담하고 소송 관련 업무도 하기 때문에 문과적 성향도 필요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해외 대학생과 만나 교류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을 했던 것이 제게는 매우 소중한 자산이 되었습니다.

또한 동아리를 통해 좋은 친구들을 많이 사귄 수 있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한 후 지금까지도 꾸준히 연락하며 지내고 있고, 제가 시험에 합격했을 때 진심으로 축하해준 친구들이기도 합니다.

### 하고 싶은 일과 할 수 있는 일에 대한 구분이 필요

변리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요즘,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는 사람들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저는 확실한 계획과 준비 없이 무턱대고 변리사 시험에 도전하는 태도는 지양했으면 합니다.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변리사에 대해 호평일색인 뉴스만 보고 변리사에 대한 환상을 품는다면 실망할 거라는 것입니다. 대부분 높은 연봉 때문에 변리사가 되고 싶어 하는데,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큼의 연봉을 받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타 일반 직무에 비해서는 연봉이 높은 편이긴 합니다만 단순히 돈을 많이 벌고 싶은 마음에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변리사 중에는 이공계 출신이 많습니다. 아무래도 기술, 매체와 관련하여 특히, 지적재산권 문제가 많기 때문에 업무적으로 문과보다는 이과에 더 가깝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공계 지식만 필요하다는 건 아닙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사람도 상대하고 소송 관련 업무도 다루기 때문에 기초적인 문과적 소양, 법률적 마인드도 갖춰야 합니다.

끝으로 공무원 시험을 비롯하여 고시 공부를 하고 있는 환우 여러분들께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무원은 많은 사람들이 준비하고 있는 만큼 좋은 진로입니다. 특히 건강관리가 중요한 혈우 환우들에게는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단순히 ‘많이들 하니까’, ‘몸이 아프니까 공무원을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하고 싶은 일과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일에 대해 명확하게 구분한 후에 자신의 적성과 환경, 건강관리, 취업후의 생활 등을 객관적으로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할지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힐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시작한 계획이라면 단기적인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끈기 있게 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찾아올 것입니다.



**Family  
Story**

김건일 환우

**수술을 망설이지 말고,  
관리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혈우 환우 여러분 저는 경북 경산에서 조그만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는 올해로 43세 김건일이라고 합니다. 서툰 글 솜씨지만, 제 수기가 여러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이렇게 글을 적어 봅니다. 제가 어깨 통증을 앓기 시작한 건 초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넘어지면서 어깨가 한 번 빠졌는데, 그 이후로 줄곧 어깨에 통증이 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후로 10여년이 지난 21살이 되어서야 저는 여수근, 유흔씨로부터 제가 혈우병에 걸렸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때 재단의원에서 어깨와 무릎을 진찰받으면서 원장님으로부터 관절경수술을 하기에 늦었고, 인공관절수술을 하기엔 이르기 때문에, 우선은 최대한 약을 사용한 후에 수술을 하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후로 한동안은 통증이 있을 때에만 약을 투여하며 일상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07년 여름에 무릎 수술을 하였습니다. 오랫동안 목발에 의지하며 생활하던 중 고관절과 발목, 어깨에 심한 통증이 온 것이었습니다. 수술은 동서신의학병원(현 강동경희대병원) 김강일 교수님께 받았습니다. 수술을 받고 1년 정도 지났을까요. 종아리에 근육이 붙고 발목 통증이 사라졌을 즈음 어깨 통증이 심해지기 시작했습니다. 팔의 각도도 점점 좁아지고 있었습니다.

2013년부터 일상생활에 제약이 왔고 이듬해 2월부터는 너무 아파 누워서 잠을 잘 수 없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습니다. 허리와 엉치뼈의 통증도 심해졌습니다. 더 이상 미뤘다간 다른 부위도 통증이 심해질 것 같았습니다.

2014년 7월에 강동경희대병원 조남수 교수님께 오른쪽 어깨 관절경 수술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이었고 퇴원 후 바로 침터에 입소했습니

다. 재단의원 선생님들과 씬터 어머니로부터 재활과 보호를 받으면서 빠르게 회복했습니다. 아직은 손목과 팔목을 완벽하게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있어서 씻을 때 불편했지만, 다들 도와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아들 같이 대해주시면서 맛있는 음식으로 보호해주시는 씬터 어머니, 코헨 사무국 직원들, 재단의원 선생님들과 물리치료사 분들의 도움으로 하루하루 빠르게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함께 씬터 생활을 했던 동생들을 잊을 수 없습니다. 같은 병을 앓고 있다는 동질감에 친동생 같이 느껴졌고 정말 잘 지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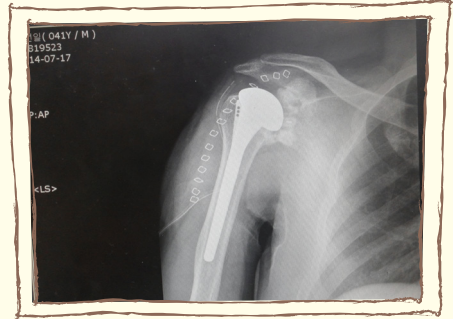
물리치료를 받으면서 하루가 다르게 어깨가 회복되는 걸 느꼈습니다. 수술 전까지만 해도 팔이 운전대에 올라가지 않아 운전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는데, 운전도 편하게 할 수 있게 됐고 천정에 달린 전구도 교체할 수 있을 정도로 회복된 것이었습니다. 팔을 뻗어 멀리 있는 반찬까지 먹을 수 있게 되었고, 별 통증 없이 편하게 글을 쓸 수도 있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완벽하게 다 나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일상생활을 하는 데 힘들지는 않습니다. 일도 조금씩 늘려가며 하고 있습니다.

두 달 전부터는 주유소 아르바이트도 시작했습니다. 주유소 일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자동차 주유구캡을 돌릴 때는 손목을 사용하니까 운동이 되고, 주유통을 들 때는 팔 운동이 되고, 팔을 뻗어 제 키보다 큰 주유기의 버튼을 누를 때도 운동이 되고, 세차할 때는 계속 팔을 움직이니까 이것도 운동이 됩니다. 하지만 너무 오랫동안 하면 무리가 될까봐 4시간 정도만 근무합니다.

수술 후 제가 깨달은 사실은 유지요법만큼 중요한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혈우병 검사도 좋아지고 약도 많아졌을 정도로 과거에 비해 혈우병을 관리하기가 좋아졌습니다. 그러므로 어린 환우 분들께서는 평소 관리에 최선을 다하셔서 수술과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살아가지길 바랍니다.

혹시 수술을 망설이는 분들이 있다면 빨리 수술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더 미뤘다가는 정작 수술을 받고 싶을 때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 Family Story

최현서 환우 어머니

## 현서, 현우, 현준이의 꿈을 향한 멜로디

안녕하세요 최현서, 현우, 현준이 엄마입니다. 전에도 몇 번 코험지를 통해 인사를 드려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모두 다섯 명으로 아들만 셋입니다. 올해로 현서는 9살, 둘째 현우는 6살, 막내 현준이는 5살이 되었습니다. 아이들 아빠는 매일 회사에 출근하면서도 집에 와서는 직접 아이들에게 주사도 놔주고 재단에서 약도 받아올 정도로 아이들을 위해서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희 가족은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비록 2012년에 세 아이 모두 혈우병 진단을 받았지만 씩씩하게 주사도 맞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대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 드라마 사연에 응모, 피아노 선물받아

며칠 전 현서와 저희 가족은 매우 특별한 피아노를 선물 받았습니다. 혹시 작년 12월에 종영한 <내일도 칸타빌레>라는 TV드라마를 아시나요? 저희 가족은 우연히 드라마를 보고 사연을 응모하면 꿈이 있는 아이들에게 디지털 피아노를 선물로 준다는 소식을 접하고 사연을 응모했습니다. 대개 그렇듯 별 기대를 안 하고 신청한 응모였는데,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드라마에 출연한 주연배우 주원, 심은경씨로부터 직접 피아노를 선물 받게 된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저희 사연은 주원씨가 직접 선정해주셨다고 합니다. 현서는 혈우병 말고도 아스퍼저 성향의 자폐스펙트럼 장애가 있는데, <굿닥터>라는 드라마에서 직접 아스퍼저 증후군을 갖고 있는 의사 역할을 했던 주원씨가 현서의 사연을 감명 깊게 읽었던





것입니다. 피아노 증정식에서 직접 만나 느낀 점이지만, 주원씨와 심은경씨는 정말 멋지고 마음이 따뜻한 배우인 것 같습니다. 한 두 개도 아니고 시청자들이 보낸 그 많은 사연들을 직접 일일이 읽어보고 골랐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매일 집에서 피아노를 연주하는 현서를 볼 때마다 감사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감사한 일이 저희 가족에게 일어났는지, 아직도 꿈을 꾸는 것 같습니다. 저도 받은 만큼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 음악을 좋아하는 현서

현서는 지금보다 어렸을 때부터 음악적으로 소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감각보다 청각이 발달되었던 것 같아요. 음감이 좋다는 얘기도 종종 들었습니다. 동요를 비롯해 많은 노래들을 잘 따라 불렀습니다. 버스커버스커의 노래 <벚꽃 엔딩>에 흠뻑 빠진 적도 있었죠. 그런 현서를 보면서 음악성을 키워주고 싶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코험회 여름캠프에서 피아니스트 이희아 씨의 연주에 감명을 받고, 음악을 통해 행복을 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현서를 피아노학원에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전부터 피아노가 집 중력 발달에 좋다는 말을 많이 듣기도 했고요. 처음에는 다소 예민한 현서가 피아노를 잘 배울 수 있을지 걱정했는데, 다행히도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요즘에는 피아노에 푹 빠져 삽니다. 또한 희망세움터라는 곳에서 저렴한 비용으로 음악치료수업도 받고 있습니다.

음악을 좋아하는 현서가 피아노를 잘 치게 되면 기타도 배우게 하여 음악성을 더욱 키워주고 싶습니다. 열심히 악기를 연습하고 즐거워하는 현서를 통해 동생들도 좋은 영향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다행이다, 세 아이 모두 잘 자랐으면

엄마로서 아들 셋을 키운다는 건 정말 만만치 않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 래도 늘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막내 현준이가 크게 다치면서 세 아이 모두 혈우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지만, 특별히 혈우 자녀들의 엄마라서 힘든 건 없습니다. 꾸준히 주사를 맞으며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크



게 출혈이 있거나 아픈 적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만하길 다행이다', '혈우 병이라는 사실을 일찍 알게 돼서 다행이다'라고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최선을 다해 양육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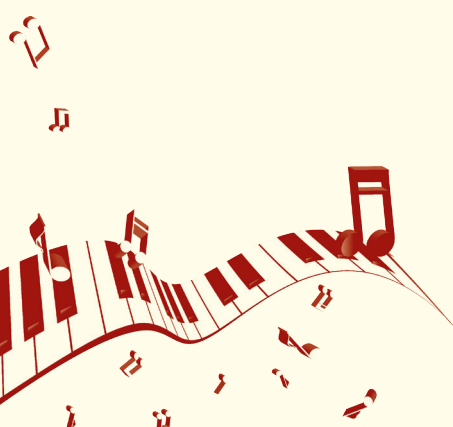
피아노와 음악을 좋아하는 현서와 달리 둘째 현우는 그림 그리기를 좋아합니다. 이 다음에 화가나 만화가가 되려는 걸까요. 올해는 미술학원에 보내 현우의 재능을 키워주고 싶습니다. 이제 5살이 된 현준이는, 아직 너무 어려서 정확히 어떤 것에 소질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숫자와 영어 알파벳을 좋아합니다. 아마도 학교에 들어가면 여러 과목들 중에서 영어를 가장 잘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요즘엔 삼형제 모두 여러 나라 국기에 빠져있습니다. 가고 싶은 나라가 많았는데, 세 아이 모두 큰 꿈을 품고 멋지게 자랐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을 기르면서 그동안 혈우재단을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혈우 환우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프로그램과 부모교육은 저에게 한줄기 빛 처럼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목장체험처럼 아이들과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들을 통해서도 좋은 추억을 많이 만들 수 있었습니다. 혈우 자녀들의 엄마로서, 아마 저 혼자였다면 아이들을 기르는 데 많이 힘들었을 텐데, 늘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프로그램을 제공해주는 재단 관계자 분들이 있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정말 감사한 마음입니다. 요즘에는 아이들 주사도 저희 부부가 직접 놓기 때문에 예전만큼 자주 재단을 방문하지는 못하지만, 생각만으로도 재단은 저희 가족에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어느덧 2015년의 첫 달도 지나가고 있습니다. 청양의 해를 맞아 올해에는 저희 아이들 모두 잠도 잘 자고, 더 건강하고, 많이 웃고, 더욱 의젓한 모습으로 한 뼉 더 성장하기를 바랍니다. 다른 환우, 가족분들도 올 한해 모두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현서, 현우, 현준아. 앞으로 더욱 다정하고, 멋지고, 괜찮은 엄마가 되도록 노력할게! 셋이서 고맙고 또 고맙구나! 엄마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한단다! 내 소중한 보물들아~!!





## 새학기 대비 자가주사

김정임 혈우재단 서울의원 간호사

한 달 후면 새 학기가 시작된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환우들은 학교와 학원 등 집 밖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원활한 혈우병 관리를 위해서는 자가주사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새학기를 맞아 자가주사로 일상 속에서 더욱 건강하고 편리하게 혈우 관리를 시작해보자.

### 자가주사의 적절한 시작 시기는 언제?

자가주사란 말 그대로 환우가 스스로 주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혈우 환우들은 출혈이 발생하면 신속하게 응고인자를 투여해야 합니다. 이 경우 환우 스스로 응고인자를 투여할 수 있다면 굳이 병원에 방문하지 않고도 빠르게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유지요법도 스스로 함으로써 매번 병원에 가는 데 드는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자가주사를 언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가주사의 적절한 시기를 일률적으로 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환우가 독립하기 전에는 자가주사를 익히는 게 좋습니다.

최근에는 중고생 환우들도 활동이 많아지면서 이른 시기에 자가주사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얼마전 주사교육에서 고3 환우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자가주사를 언제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가'라는 물음에 '14-16세'라고 응답한 환우가 가장 많아, 어린 환우들이 자가주사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자가주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는 '부모님이 주사해주셔서'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를 통해 이미 중고생 환우들은 자가주사를 시작할 의지가 있지만, 기회를 주지 않았던 건 아닌지 생각해보았습니다. 따라서 중고생 환우들에게는 자가주사에 대해 적극적인 권고와 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자가주사, 실패에는 격려를, 성공에는 응원을



자녀가 자가주사를 시작하면 부모 입장에서는 걱정과 조급함이 앞서게 됩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마음을 차분히 먹고 지켜봐주셔야 합니다. 혹 자가주사에 실패하더라도 격려하며 용기를 주고 성공했을 때에는 아낌없는 칭찬으로 자신감을 높여 주셔야 합니다.

재단에서는 매월 1회 주사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은 60~80분 동안 진행되며 이론과 실습 교육으로 이뤄집니다.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한 번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자가주사에 성공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때문에 꾸준한 연습을 통해 나뉠의 주사 스킬과 감각을 익혀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주사교육에 참여하는 환우분들을 보면 조금씩 자신감과 독립심을 갖고, 주체적으로 혈우병 관리를 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처음에는 두렵고 아프겠지만 꾸준히 노력하다보면 머지않아 더욱 자유롭고 적극적인 삶을 살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 주사교육 안내

일시 : 매월 3주 또는 4주차 화요일 오후 4시

장소 : 혈우재단 4층 교육실

문의 : 혈우재단 서울의원 간호사실  
(02-3473-6100, 내선 104)



※ 재단 부산의원, 광주의원의 경우 서울의원과 일정에 차이가 있으니 미리 확인하셔서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주사교육에 참여하시기 원하시는 분들께서는 사전에 예약해주시기 바랍니다. 학교 방학기간에는 환우들의 스케줄을 고려하여 일정이 변경될 수도 있으니, 재단 홈페이지([www.kohem.org](http://www.kohem.org))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인부담상한액 변경 안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5년도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을 변경했다. 기존의 본인부담액이 수가 인상 등의 사유로 해마다 오르거나, 물가상승율을 반영하지 못해 본인부담상한액이 낮아지는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2015년도 본인부담상한액을 변경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단지원 상한액도 아래와 같이 변경하오니, 환우 여러분들께서는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란다.

- 적용기간 : 2015. 1. 1. ~ 2015. 12. 31.
- 본인부담상한액 및 재단지원금

본인부담상한액 및 재단지원금 (2014년 상한액과 비교)

(단위: 천원)

구분	보험료 수준	10%이하	11~30%	31~50%	51~70%	71~80%	81~90%	91~100%
		(1분위)	(2~3분위)	(4~5분위)	(6~7분위)	(8분위)	(9분위)	(10분위)
본인부담 상한액	2014년도	1,200	1,500	2,000	2,500	3,000	4,000	5,000
	2015년도	1,210	1,510	2,020	2,530	3,030	4,050	5,060
재단지원 상한액		605	755	1,010	1,265	1,515	2,025	2,530

- 상한제 사전급여 : 1년간 본인부담액이 506만원을 넘을 경우 506만원까지만 납부하고 그 초과액은 요양기관이 공단에 청구 (재단 부설의원 이용 시 적용)

## 겨울철 공공의 적 뇌졸중

감기를 비롯해서 낙상, 동상 등 유독 겨울만 되면 병원은 더욱 바빠진다. 그리고 겨울하면 떠오르는 질환이 하나 더 있다. 겨울철 건강을 위협하는 불청객, 뇌졸중이 바로 그것이다.

### 뇌졸중, 가볍게 여겼다가는 큰일

흔히 중풍으로 불리는 뇌졸중(腦卒中)은 혈액공급 장애로 인해 뇌에 혈액이 원활하게 공급되지 않아 발생하는 뇌혈관질환이다. 2012년 통계청에 따르면 뇌졸중은 암, 심장 질환에 이어 세 번째로 높은 사망률을 보이고 있다.

겨울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뇌졸중은 추운 날씨로 혈관이 수축됨에 따라 뇌혈관이 막히거나 터져 혈액공급에 장애가 생기는 것이다. 주 발병 연령은 70대 이상인데 최근에는 서구화된 식단과 운동부족, 과로, 스트레스 등으로 젊은 연령대에서도 자주 발병하고 있다. 대개 15세 이전에는 외상이 주된 원인이고 나이가 들수록 고혈압, 당뇨 등 성인병과 함께 동반되는 경우가 많다.

뇌졸중은 크게 허혈성 뇌졸중(뇌경색)과 출혈성 뇌졸중(뇌출혈)으로 나뉜다. 허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막혀 뇌에 혈액공급량이 감소하는 것이고, 출혈성 뇌졸중은 뇌혈관이 터져 출혈이 발생하는 것이다. 뇌졸중 환자의 67%는 뇌경색이고 33%가 뇌출혈이다. 혈우병 환우들은 일반인에 비해 뇌출혈 발병 가능성이 높다. 뇌출혈의 발병 원인으로는 고혈압, 감염, 뇌종양, 출혈성 질환 등이 있는데 이 중 혈우병이 출혈성 질환에 속하기 때문이다.

뇌졸중의 주요 증상으로는 극심한 두통과 구토, 팔 다리의 마비, 말이 어눌해지는 것 등이 있다. 이러한 증상들은 대개 점진적으로 나타나 뇌졸중에 걸렸다는 걸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 따라서 뇌졸중의 전조증상(뇌졸중이 악화되기 전 증상)을 알고 있어야 한다. 혈우 환우들은 전조증상 단계에서 최대한 빨리 응고인자를 투여한 후 정밀진단과 임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출혈이 심해져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다. 혈우 환우들에게 진단 후 치료는 너무 늦은 대처일지도 모른다. 혈우병 치료의 일반 원칙, “의심되면 치료하라(If in doubt, treat)”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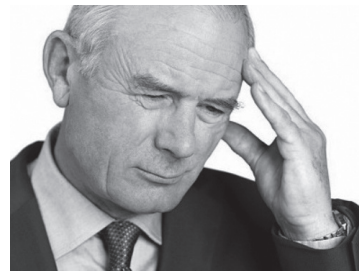
##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

그렇다면 뇌졸중은 어떻게 치료해야 할까. 전문가들은 뇌졸중은 치료보다 예방이 중요한 질환이라고 입을 모은다. 정기적인 검진을 통해 당뇨, 고혈압 등 뇌졸중 위험도를 높이는 질환 여부를 확인하고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좋다. 평소 과일, 채소를 많이 먹고 음식은 짜지 않게 조절하여 혈압을 낮게 유지하는 게 좋다. 술과 흡연을 삼가는 것은 기본이다.






뇌졸중은 발병 후 2-3시간 이내에 응급처치를 받아야 한다. 이 시간을 놓치면 회복이 더뎠고 평생 후유증을 안고 살아갈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실제로 2-3시간 이내에 치료를 받는 사람들은 전체 뇌졸중 환자 중 10%도 안 된다. 예방이 치료보다 중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주된 이유라고 할 수 있다.

## 뇌졸중 전조증상

- 1) 어지럼증과 두통이 잦고 점점 더 심해진다.
- 2) 구토가 반복된다.
- 3) 한 쪽 팔 다리에 감각이 무뎠고 균형을 잡기가 어렵다.
- 4) 눈앞이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 5) 말이 어눌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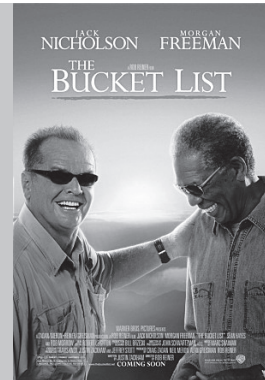
## 뇌졸중 예방 수칙

-  음식은 짜지 않게 먹고 채소와 과일을 충분히 섭취한다.
-  매일 30분 정도 수영, 조깅, 자전거 타기 등 유산소 운동을 한다.
-  음주와 흡연은 금물!
-  겨울철 외출 시 목도리, 장갑 등을 착용하여 보온성을 높인다.
-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고 전조증상이 보이면 즉시 병원에 간다.

참고 : 세계 뇌졸중 캠페인([www.worldstrokecampaign.org](http://www.worldstrokecampaign.org))  
건강인 매거진([hi.nhis.or.kr](http://hi.nhis.or.kr))



## 새로운 시작, 영화 버킷리스트 (The Bucket List)



‘버킷리스트(Bucket list)’. 죽기 전에 꼭 해야 할 일이나 해보고 싶은 것들을 적어 놓은 리스트를 말한다. 누구나 버킷 리스트 하나쯤은 있을 것이다. 남들이 들으면 코웃음을 칠지 몰라도 스스로에게겐 생각만으로 가슴 설레는 꿈의 목록. 2015년, 버킷리스트로 새롭게 한 해를 시작하는 것은 어떨까.

### 당신의 꿈은 무엇입니까

꿈, 오늘날 꿈이라는 말만큼 역설적인 말도 없는 것 같다. 세상에 꿈 없는 사람 한 명도 없다지만, 꿈을 이루며 살아가는 사람도 매우 드물다. 바쁘게 돌아가는 현대사회에서 사람들은 꿈에 목말라한다. 그만큼 꿈을 이루며 사는 것이 정말 한 밤 꿈처럼 어렵기 때문이 아닐까.

영화 <버킷 리스트; 부제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은 것들> (롭 라이너, 2008)은 우리에게 “당신의 꿈은 무엇인가”라고 질문한다. 이는 결국 인생에 대한 고찰로 귀결된다. ‘과연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건가’라고 자문하는 동안, 자연스럽게 영화 속 두 주인공, 에드워드 콜(잭 니콜슨 분)과 카터 챔버스(모건 프리먼 분)의 삶에 우리의 삶을 대비시키게 된다.

둘 다 말기 암 선고를 받고 우연히 같은 병실에 입원하게 된 에드워드와 카터. 같은 공간에 있다지만 그들의 인생은 너무도 다르다. 다혈질 사업가 에드워드가 부유하게 살아온 반면, 카터는 가난한 형편 탓에 자동차 공장에서 일하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다. 판이한 인생만큼이나 불협화음만 내던 두 남자, 그들의 삶을 바꿔놓은 건 휴지통에 버려진 종이 한 장이었다.

### 꺾이지 않는 삶의 의지

모든 일에 염세적인 에드워드와 달리 카터는 매일 수첩에 자신의 버킷리스트를 적으며 삶에 대한 의지를 버리지 않는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앞으로 살아갈 날이 1년도 남지 않았다는 시한부 선고에 카터는 버킷리스트를 구겨 휴지통에 던져버린다. 다음날 에드워드는 카터가 버린 버킷리스트를



들고 여기에 적혀있는 모든 꿈들을 함께 실현해보자며 카터를 설득한다. 심지어 자신의 버킷리스트 까지 추가하며 모든 비용을 지원하겠다고까지 한다.

그날부터 그들은 돌도 없는 인생의 동반자가 되어 함께 버킷리스트를 이뤄나가기 위한 여행을 떠난다. 몸은 병약해졌지만 스카이다이빙을 하고, 아찔한 자동차 경주도 하고, 인도의 타지마할에서 기념사진을 찍기도 한다. 그렇게 하나씩 수첩에만 적어뒀던 꿈의 리스트들을 지워나가면서 에드워드와 카터는 지금까지 한 번도 살아보지 못했던 새로운 인생을 경험한다.

### Find the joy in your life

인생의 기쁨을 찾아라! 영화 속 카터의 대사를 듣고 인생에 대해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오늘날 우리 삶의 기쁨은 무엇이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즐겁게' 살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까. 부대끼는 현실 속에서 마음속에 고이 적어둔 버킷리스트를 펼쳐보지도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닐까.

새해가 되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의 목표와 계획을 세운다. 대부분은 작심삼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그래도 그 리스트에는 더 나은 삶에 대한 의지와 열망이 담겨 있다. 우리 환우들도 2015년 새해를 맞아 자신만의 버킷리스트를 통해 인생의 즐거움을 찾아나가는 건 어떨까. 꿈을 이뤄나가는 삶, 그것은 곧 새로운 시작이다.

사진 출처: 네이버 영화



### 2015년 혈우재단 사무식



지난 1월 2일(금), 재단 4층 교육실에서 재단 사무국 및 서울의원 직원들이 모인 가운데 2015년 사무식이 열렸다. 이 자리에서 혈우재단 송중호 상임이사는 "어느덧 우리 재단이 2015년 새해를 맞이 하였습니다. 올해에는 재단 슬로건을 '거듭나기'로 정했는데, 그 말처럼 다시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거듭나는 2015년이 될 수 있도록 다 함께 노력 합시다"라고 말하며 직원들을 독려했다.

한편 이날 재단 각 부설의원에서는 새해를 맞아 내원한 환우와 가족분들을 위해 새해 떡과 음료를 나눠드리고, 대기실에 설치된 커피자판기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 2015년 혈우재단 슬로건 발표



혈우재단이 2015년 새 슬로건 '거듭나기'를 발표했다.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다함께 All Together'라는 슬로건을 사용한 혈우재단은 '거듭나기'라는 새 슬로건을 통해 다시 새롭게 태어남으로써 혈우 환우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뛰고 환우의 삶의 질을 높이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올해 슬로건 선정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혈우 환우들의 공모를 받아 눈길을 끌었다. 총 세 분의 환우께서 공모에 참여해 주셨으며, 재단은 공모에 참여한 이들 세 환우분들께 감사의 의미로 소정의 상품을 전달했다.

### 2015년 혈우재단 워크샵



혈우재단은 지난 1월 24일(토)~25일(일) 충남 부여 백제관광호텔에서 워크샵을 가졌다. 재단 임직원 35명이 모인 자리에서 황태주 이사장은 "2015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지 생각하고, 재단과 자기자신을 향한 가치를 찾아 좋은 결과를 내기 바랍니다"라고 개회인사를 전했다.

이후 재단 직원들은 올해 슬로건인 '거듭나기'라는 주제에 맞춰 간호·원우, 진로지원, 복지지원 등 각 팀별 업무의 개선사항과 계획을 토의하고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 자판기 수익금 환우가정에 기부

혈우재단은 2014년 한 해 동안 재단의원 대기실에 설치된 자판기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금과 지난해 11월에 열린 목장체험 수익금을 모아 환우 가정에 기부했다. 수익금은 총 180만원으로, 가정형편이 어려운 의료급여 또는 차상위 계층에 속하는 9가정을 선정하여 겨울철 난방비로 전달하였다.

### 학교상담 부모교육



지난 1월 21일(수) 재단 4층 교육실에서 학교상담 부모교육이 열렸다. 이 자리에는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환우자녀의 부모 5명이 참석했다. 교육을 진행한 혈우재단 김윤





정 사회복지사는 △환우 자녀의 입학 전 준비사항, △담임 교사에게 혈우병 설명하기 등에 대해 교육했다. 또한 현재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중인 환우 어머니가 경험담을 나누고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문의 : 김윤정 사회복지사 02-3473-6100, 내선321)

### 연말 어린이 선물 전달

혈우재단은 지난해 12월 연말을 맞아 재단에 등록된 4세~12세 환우 어린이 및 가정에 선물을 배송했다. 선물은 연령에 따라 장난감, 학용품, 퍼즐, 문화상품권 등으로 구성되었으며, 200여명의 환우 어린이들이 선물을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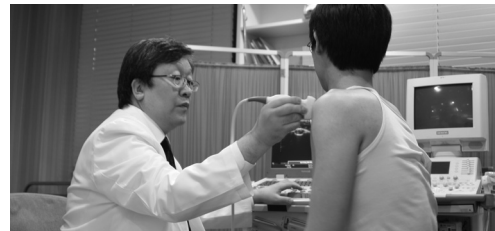
### 의료교육 및 물리치료교육 실시

재단 서울의원은 지난 12월 18일(목) 재단 4층 교육실에서 올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 환우 6명을 대상으로 의료교육을 실시했다. 서울의원 김정임 간호사의 지도로 진행된 이번 교육에서 환우들은 자가주사 이

론, 실습 교육을 들었다. 한편 교육에 앞서 진행된 물리치료 교육에서는 권세진 물리치료실장이 출혈 종류에 따른 증상 및 물리치료 방법 등에 대해 설명하는 시간을 가졌다.

(문의 : 서울의원 간호사실 02-3473-6100, 내선 104)

### 재활클리닉 실시



재단 서울의원은 지난 12월 17일(수), 1월 14일(수) 의원 진료실에서 각각 환우 2명, 7명이 참석한 가운데 재활클리닉을 실시했다. 진료는 중앙대 재활의학과 김돈규 교수가 담당했다.

(문의 : 서울의원 간호사실 02-3473-6100, 내선 104)

## 여러분의 사랑이 혈우가족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국혈우재단은 시민과 기업의 후원으로 운영되는 비영리 사회복지법인입니다. 여러분의 후원은 혈우환우의 건강을 위한 의료비 지원, 취업 지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에 사용됩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후원문의** 혈우재단 사무국 행정관리팀 ☎ 02-3473-6100 (내선 300번)

**후원계좌** 우리은행 880-023518-13-108 (예금주 : 사회복지법인 한국혈우재단)

※ 후원자께서는 관련 법에 따라 후원금 영수증을 발급하여 드립니다. (연락처를 꼭 알려주세요.)

### 2014년 11·12월 후원자

조순태, 정수현, 구민희, 김창진, 조영남, 정연재, 강성대, 이영철, 김경범, 박영석, 임경춘, 이용석, 김민철, 김종연, 서영하, 배종진, 방성환, 김종록, 박권석, 박광준, 신철호, 정규명, 김성배, 함영호, 노지훈, 이선행, 정규태, 소갑영, 이재호, 채희찬, 손만호, 김중구, 조광선, 허은철, 조재훈, 박광수, 이인규, 김상기, 박원호, 김태희, 신용원, 박병희, 최용준, 김진웅, 이규성, 서종대, 허정찬, 정명은, 문영애, 김영호, 엄필용, 노성일, 민보경, 천문기, 안지원, 고재일, 김대중, 안창용, 박선명, 김정민, 도중석, 강태욱, 옥승환, 황성호, 윤종한, 조희정, 김법민, 이태훈, 박대영, 박형순, 이미숙, 김도엽, 권지선, 박건식, 이진철, 황병오, 황선우, 임광빈, 이청민, 김성현, 이형민, 선정호, 권오성, 한정엽, 우정균, 서승희, 윤정순, 이만희, 강현구, 김유진, 조재욱, 김용길, 조성병, 김제연, 한상걸, 임광묵, 유재학, 송민성, 백선동, 조경환, 이병훈, 이계원, 김태형, 유대은, 황용하, 박혜라, 성다래, 전선희, 고수빈, 채규탁, 권봉성, 최지은, 이아람, 최보혁, 최경하, 장청미, 이한기

(이상 117명, 후원총액 1,462,000원)

## ●●●●● 독자우체통

다음 문제를 풀어 혈우재단  
앞으로 보내주세요.  
정답을 맞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1. 2015년 혈우재단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2. 2015년 코헨지 연간특집이자 인간의 6가지 감정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  
까요. (6가지 각각의 개념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중 뇌졸중의 전조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 ① 어지럼증과 두통이 잦고 점점 더 심해진다.
- ② 눈앞이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 ③ 구토가 반복된다.
- ④ 한쪽 팔 다리에 심한 통증이 온다.

## 나도 한 마디

코헨지에 첨부된 엽서를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한 마디를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 
- 항상 따뜻한 사랑을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 지미리 님
  - 2014년 한 해도 감사했습니다. 덕분에 건강한 한 해 보낼 수 있었습니다. / 한찬솔 님
  - 항상 환우들을 위해 노력하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김민수 님
  - 언제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 장주옥 님
  - 겨울이 되니까 길이 많이 미끄러워요. 낙상사고 조심하세요^^ / 서유진 님
  - 취준생 환우들을 위해 취업 관련 내용이 좀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 이승배 님
  - 지난 1년 동안 혈우재단이 보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며, 2015년에도 아낌없는 도움을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 박경묵 님
  - 혈우 환우분들 추운 날씨에 건강관리는 잘 하고 계신가요? 곧 설날입니다. 오래만에 가족분들과 즐거운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 최영수 님

봉 함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주소

□□□-□□□

우 표

사 회 복 법 지 인 한국혈우재단

KOREA HEMOPHILIA FOUNDATION

서울특별시 서초구 사임당로 70

☎(02) 3473-6100 FAX: 3473-6644

1 3 7 - 8 7 9

붙일하는곳

2015. 1. 2월호  
퀴즈 정답

이름 :                      전화번호 :  
주소 :

1. 2015년 혈우재단의 슬로건은 무엇일까요?
2. 2015년 코헬지 연간특집이자 인간의 6가지 감정을 뜻하는 말은 무엇일까요. (6가지 각각의 개념도 함께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3. 다음 중 뇌졸중의 전조증상이 아닌 것은 무엇일까요?  
 ① 어지럼증과 두통이 잦고 점점 더 심해진다.      ② 눈앞이 어두워지고 잘 보이지 않는다.  
 ③ 구토가 반복된다.                                      ④ 한 쪽 팔 다리에 심한 통증이 온다.

당첨자 명단은 다음호에 발표하며 선물은 자택으로 우송해드립니다.  
<2015년 3월 20일 이내 도착에 한함>

접어주세요

### 독자의 소리를 듣습니다.

① '코헬'지에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

---

---

---

② 혈우재단에 건의하고 싶은 내용

---

---

---

③ 나도 한 마디

---

---

---

④ 코헬지 e-mail 구독 신청 (e-mail 주소 : \_\_\_\_\_ )

'e-mail 코헬' 만                       우편과 e-mail 둘다                       우편물만

❖ 『코헬지』는 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소식지입니다. 여러분이 직접 보내주는 의견과 글 아이디어가 모두 중요합니다. 채택된 분에게는 소정의 원고료를 드립니다.

붙  
칠  
하  
는  
곳

붙  
칠  
하  
는  
곳





## 포토칼럼

2016년!  
더욱 열심히 뛰는  
혈우재단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 140호 정답 및 당첨자

1. ③ 남자의 경우 노년기에 유연성과 양육동기가 커진다.
2. 가정간호사업
3. ③ 동지(冬至)는 1년 중 밤이 가장 긴 날이다.

퀴즈에 참여하신 분들 중 총 13분이 정답을 맞히셨습니다. 보내주신 성원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코헬지』는 독자 여러분의 글과 사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보내주신 글과 사진은 확인 후 『코헬지』에 게재될 것이며, 제공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상품을 드리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또한 주위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 소개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혈우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 격려의 글, 축하 등 하시고 싶은 말씀 등은 왼쪽 옆서에 담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가 『코헬지』를 더욱 풍성하게 꾸미고, 전국에 계신 혈우 환우 분들께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코헬 140호 퀴즈 참여자 중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 김민수, 김영진, 남경훈, 박경목, 서유진, 신승민, 이병길, 이승배, 장주옥, 지미리, 최영수, 추동균, 한찬술 님 - 이상 13명

# 혈우 환우의 보람된 삶에 기여하는 혈우병 관리의 글로벌 리더



VISION

CORE  
VALUE

**복지** 다가가는  
복지서비스

**의료** 포괄적인  
의료서비스

**연구** 미래지향적인  
혈우병 연구

**정책** 혈우병 관련  
정책 건의

한 발 더 가까이, 한 걸음 더 높이  
Step-up Approach, One Step Up



**Kindly Open Mind** 친근하고 열린 마음

곳은 일도 마다하지 않고 아무런 장벽 없이 다가갈 따뜻한 마음으로 환우들을 보듬어 줌



**Heartful Professionalism** 따뜻하고 믿음직한 전문성

그 누구보다 혈우 환우를 잘 이해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을 갖춘



**Fervor & Patience** 끈기있게 노력하는 열정

자기희생을 바탕으로 어려움과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혈우 환우를 위한 열정을 가지고 노력함